

감독의 사인에 따라야

노 영 한
(본회 전무이사)

대만의 구제역 발생과 방제사업에 대해서는 유비무환을 위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들이 많이 있다.

초기에 너무 빨리 전파된 것과 박멸정책, 백신 정책에 약간의 혼선이 있었던 점 등 우리가 준비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다. 특히 전 돼지 및 소에 2회에 걸친 구제역 백신으로 소강상태로 접어든 것 등 대만 양돈농가의 태도도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다.

금년도부터 돼지 콜레라 박멸정책이 추진중인데 공동 방역단이 조직되고 차량, 냉장고, 소독기구는 70%를 보조하고 돼지콜레라 백신은 무료로 공급된다. 공급되는 백신이 모두 돼지에 접종되기를 바랄 뿐이다.

과거 농장 관리인들이 귀찮아서 백신접종을 하지 않고 땅에 묻어 버리는 일이 종종 있었다. 말을 물가 까지는 데려가도 물을 먹일 수는 없다는 속담이 있다. 백신을 무료로 공급할 수는 있어도 접종까지 하게 할 수는 없다라는 속담이 생기면 큰 일이다.

금년 초봄에 자돈 폐사와 육성돈의 호흡기 질병 등 양돈농가의 피해가 컸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마추어가 전문가를 지도하는 형편이니 전문가가 전문가 노릇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각 회사의 영업직 직원들은 질병, 영양생리, 건축, 분뇨처리 등등 모든 분야의 전문가 노릇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낭비가 아닐 수 없다.

내과의사가 5시간 공부할 분량이면 일반의사는 20시간 공부해도 그 분야는 못따라 가는데, 최근 양돈농가를 만나 보면 구제역에 대해서 벌써 박사가 되어 있다. 이미 박사가 되었으니 전문가의 지도는 받아들여질 공간이 없게 된다. 한때는 사료회사 사장이 배합표까지 작성하던 때도 있었는데 그래도 많이 발전한 것이다. 이제는 아마추어에 의한 진단과 처방, 투약이 이루어져서는 문제만 복잡하게 만들 뿐이다.

전문가가 심층분석과 연구를 통해 결정된 일들을 양돈농가가 잘 따르는 것이 국제경쟁력 향상에 주요 항목임을 대만을 보고서 다시 배웠다.

2002년 월드컵 대회가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개최된다. 우리팀의 좋은 성적을 기원한다. 동네 축구에서 이기는 것은 쉽지만 도 대항 등 전국대회에 나가면 이기는 것은 더 어려워진다. 국제대회에서 이기는 것은 더 힘들다.

이제 수입개방으로 우리는 국제대회에서 우승해야 한다. 참으로 어려워 지는 것은 당연하다.

야구선수가 본인의 피땀나는 연습과 감독의 지시에 잘 따라야 팀이 승리한다. 감독의 사인에 눈을 맞추지 못하거나 개인의 이익이나 개인의 성적을 위해서 고의로 감독의 사인을 거역하면 팀은 패하기 마련이다. 콜레라 백신을 하라는 사인에도 눈을 맞추지 못하고 휴약기간을 지키라 해도 어긴다면 공동체 전체가 몰락할 수 있다.

더군다나 모든 것을 감독이 해주기를 바라는 것도 문제이다. 우리나라 축산이 허약한 것은 모유만을 먹으려는데 있지 않나 생각된다.

이제 이유를 하고 밥을 먹고 스스로 먹거리를 구하는 자립형 축산이 필요하지 않을까?

국제화는 양돈농가의 소득 기대수치와 충족간에 격차가 커지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육구 불만이 커지고 소극적으로 대처해서 양돈업을 포기하거나 적극적으로 개방의 파도를 헤쳐나가야 하는데, 젓을 먹고 자라는 허약한 체질로는 견디기 힘들기 때문이다.

업계가 관(官)을 사이에 두고 갈등을 계속해서 관 주도형을 자초하고 문제해결을 찾아온 환자에게 물핀주사를 하는 돌팔이식 치료를 하는 것도 문제가 된다.

최근 어느 양돈단지의 무모한 규모 확대와 시설투자로 부도가 나 주인이 바뀌어지는 것 등은 관에만 의지한 경영이 눈물의 씨앗이 되었다.

이제 양돈정책도 중간점검을 한다고 한다. 생산비가 왜 높은지 원인 분석이 생략된 채 정책이 수립되거나, 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무모할 만큼 무식한 불도저형도 문제이다.

곰을 잡을때 멧돌을 달아 놓으면 머리로 계속 받다가 죽는다고 한다. 이런 것을 미련하다고

하는데 과거 실패한 것이나 외국에서 실패한 것들을 되풀이 하지 말기를 바란다.

양돈업계에 3만명의 수의사, 3만명의 약사, 3만명의 영양학자, 시설전문가, 축산물 처리전문가, 3만명의 유통전문가, 수출전문가로는 국제화 시대를 대비하는데 전문가가 너무 많다.

**이제 수입개방으로
우리는 국제대회에서 우승해야
한다. 참으로 어려워 지는 것은 당연
하다.**

야구선수가 본인의 피땀나는 연습과 감독의 지시에 잘 따라야 팀이 승리한다. 감독의 사인에 눈을 맞추지 못하거나 개인의 이익이나 개인의 성적을 위해서 고의로 감독의 사인을 거역하면 팀은 패하기 마련이다. 콜레라 백신을 하라는 사인에도 눈을 맞추지 못하고 휴약기간을 지키라 해도 어긴다면 공동체 전체가 몰락할 수 있다. 더군다나 모든 것을 감독이 해주기를 바라는 것도 문제이다. 우리나라 축산이 허약한 것은 모유만을 먹으려는데 있지 않나 생각된다.